

언어구분 KOR

논문구분 원저/구연

논문분야 고관절

논문제목 성인 고관절 비구순 파열의 자연 경과

영문제목 **Natural history of labral tear in adult hip**

발 표 자 김태웅

책임저자 조운제

저 자 조운제, 이주현, 김태웅, 전영수, 유기형, 유명철

기 관 명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학 교실

서론 : 최근 비구순 파열의 진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예후나 치료 방침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비구순 파열의 자연경과를 밝힘으로써 비구순 파열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 최근 비구순 파열의 진단은 점차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으며 예후나 치료 방침에 있어서는 아직 많은 논란이 있으므로 비구순 파열의 자연경과를 밝힘으로써 비구순 파열의 예후를 예측하고 치료 방침을 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과 : 고관절 동통은 대부분 서혜부에 있었고, 대퇴 전방 부분이나 둔부 외측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었다. 증상의 발현 후 진단이 되기까지는 평균 19개월(3-42개월)이 소요되었으며, 진단 시 환자의 평균 연령은 36.9세(15-65세)였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외상의 과거력은 없었다. 단순 방사선 사진 상 별다른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8예에서는 진단 당시 고관절의 퇴행성 변화가 동반 되어 있었다. 자기공명 영상에서 전상방의 비구순 파열이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진단 후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평균 추시 3.7개월(1-10)에 증상의 호전을 보였는데, VAS 점수는 치료 전 6.88점에서 최종 추시 상 2.13점으로 호전 소견 보였으며 Harris 점수도 치료 전 74.3점에서 치료 후 92.8점으로 호전되었다.

결론 : 보존적 치료에 호전되어 수술 없이 추시 관찰만 한 성인 고관절 비구순 파열은 단기간 추시 상 대부분 증상의 호전과 함께 관절염의 진행없이 양호한 자연 경과를 보였으나 퇴행성 관절염 발생과의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 더 장기간의 추시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acknowledgment :

고관절, 비구순, 파열, 자연경과